“그림으로 얻은 평안, 모두와 나누고 싶어요”

12년째 병마와 싸우며 개인전 연 신미지씨

일곡갤러리 13일까지 “희망 잃지 않는 따뜻함 느끼길”
서툴지만 진솔한 그림 500여점 이웃과 행복한 나눔

일곡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신미지씨.

일곡도서관 일곡갤러리에서 전시회(13일까지)를 열고 있는 신미지(54·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아픔 12년차’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 어르신들 한글공부를 돕고 싶다는 오랜 꿈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던 지난 2010년, 음식을 먹던 중 돌을 씹었고 그 때 생긴 치아의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5년 동안 병명도 모르는 채 시간을 보내야했고, 이후 신경차단 시술을 받았지만 재발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계속된 충격에 따른 불안증세와 우울증이 이어지면서 힘든 기간을 보내야했다.

그 때, 그를 붙잡아 준 건 남편과 아이들,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이웃들, 그리고 ‘그림’이었다.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그는 그림을 통해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을 나누며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부터다. 미술교사였던 아버지가 어느 봄날 마당에 이젤을 놓고 꽃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늘 마음에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둔 파스텔과 아크릴 물감으로 꽃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아픔이 내게 준 선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70여점의 작품이 나왔다. 누군가에게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기에 그의 작품은 서툴러 보이기도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 우연히 물티슈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하기도 해 독특한 면도 있다. 그는 ‘자연이 스승이었다’고 말한다. 라벤더·백일홍 등 산책 중 만난 꽃과 나무들이 모두 소재가 됐다.

전시작 중에는 좋아하는 고흐와 모네의 모작도 있다. 고흐를 다룬 책에서 “외롭지 않기 위해 아프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림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글귀를 발견한 신 씨는 그의 작품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일곡동 카페 ‘ELODIE’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묻곤한다.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밝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냐”고.

“매일 매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었고, 하루 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어요. 바닥을 경험해보니 작은 일들에도 감사한 마음이예요. 저의 그림은 힘겨움과 힘겨움 사이, 컨디션이 괜찮을 때 마주했던 것들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다가도 그림을 그리며 이 녀석들이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까하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들뜨곤 했어요.”

지금까지 그가 그린 작품은 500여점에 달한다. 많은 작품을 누군가에게 선물했다. 아파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방앗간 사장님, 노점상 주인 등 이웃들과 마음을 나눴다. 주변엔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았다. 암투병하는 이들에게 화사한 꽃그림과 함께 쾌유를 비는 마음을 선물했다.

그는 늘 힘이 돼주는 남편, 취업까지 포기하고 온전히 자신을 돌봐준 사랑하는 아들 등 가족을 비롯해 “내 주변에는 천사들이 많다”고 말한다.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전시장을 찾는 이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희망’이라는 게 없다면 삶은 끝인 것같아요. 저 역시 살아가기 위해 희망을 부여잡아야했는데 그게 바로 그림이었죠. 희망은 친구처럼, 아이처럼 늘 곁에 두어야해요. ‘나눔’ 역시 최고의 가치입니다. 전시장에 오셔서 전문가적인 시각보다는 그저 밝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미소 한번 사알짝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아진다면 딸 아이가 결혼해 살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와 고흐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아를 등 남프랑스 지역을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타이거즈 경기보고 호랑이 벽화 즐기고

광주문화재단, 기아챔스필드에 공공미술 사업 추진

“KIA타이거즈 경기도 보고, 새 단장한 호랑이 벽화도 즐기고.”

광주문화재단은 KIA타이거즈 프로야구 개막전에 맞춰 기아챔피언스필드 주요 출입구(3, 4번 출입구) 계단에 대형 호랑이 벽화를 설치하는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했다. 〈사진〉

이번 협업은 광주문화재단이 예술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22년 임인년과 KIA타이거즈 구단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기아챔피언스필드 주 출입구 좌·우측 대형계단에 광주예술인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작업을 제안하여 추진됐다.

공공미술 작품은 황중환 작가의 ‘Always KIA Tigers’, ‘Grrrreat KIA Tiger’(길이 24m 너비 10.4m). 작품은 슬로건을 내세우며 용맹한 기상과 친근함이 느껴지는 호랑이 투수와 타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황 작가는 만화가이자 에세이스트, 아트디렉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호랑이 공공미술 작품은 1982년 광주·전라지역의 아버지가 즐겨 찾던 KIA타이거즈의 홈구장이 2022년 지금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세대를 이어 응원하고 찾는 곳으로 전환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장 출입계단에 펼쳐진 작품은 KIA타이거즈 팬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아울러 올 시즌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물할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KIA타이거즈의 다짐을 상징하기도 한다.

광주문화재단과 KIA타이거즈는 2021년도부터 매월 홈경기가 있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경기 전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해왔다. 올 공연은 5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광주 시민과 야구팬들에게 문화가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곳곳에 문화가 깃든 광주가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기업,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케이보드, 광주경향하우징페어서 친환경제품 선봬

㈜디케이보드(대표이사 한갑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광주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했다. 디케이보드는 이번 행사에서 HDC현대EP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심재(단일재료)만으로 준불연 성능 기준을 확보한 친환경 수성 제품 DK보드-X를 선보였다.

〈디케이보드 제공〉

애경산업, 조선대병원에 손소독제 5800만원 상당 기부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종)은 최근 병원 본관 10층 회의실에서 애경산업으로부터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의 손소독제 7200개(5800만원 상당)를 기부 받았다. 기부식에는 최지윤 대외협력실장, 박민수 총무부장, 김연 간호부장, 김남수 애경산업 상무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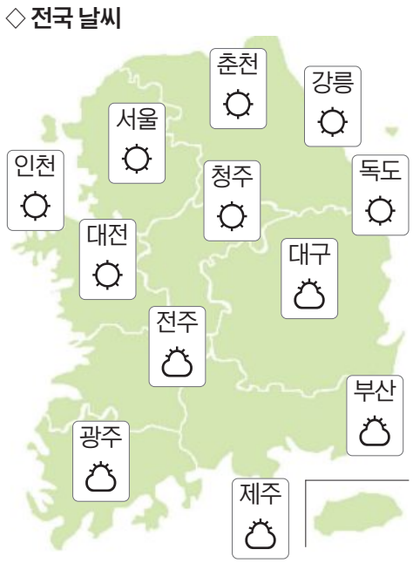
해뜸	06:14	달뜸	08:23
해짐	18:57	달짐	22:57

아침 저녁은 쌀쌀해요

일교차 크고 오후 들어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4/18	보성	구름많음	1/18
목포	구름많음	5/17	순천	구름많음	5/20
여수	구름많음	8/17	영광	구름많음	0/17
나주	구름많음	0/18	진도	구름많음	3/16
완도	구름많음	6/18	전주	구름많음	3/18
구례	구름많음	1/20	군산	구름많음	4/15
강진	구름많음	3/19	남원	구름많음	0/18
해남	구름많음	1/17	흑산도	구름많음	6/15
장성	구름많음	0/18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m)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먼바다(북)	0.5~1.0	0.5~1.0
	먼바다(남)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먼바다(서)	0.5~1.0	0.5~1.0
	먼바다(동)	0.5~1.0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48	04:44
	21:52	16:37
여수	05:09	11:13
	17:14	23:43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높음	보통

◇ 주간 날씨

6(수)	7(목)	8(금)
6/20	7/18	7/22

9(토)	10(일)	11(월)
9/23	10/24	11/23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정동환·조수인씨 차남 우신군, 김현철(금호고속 대표이사 사장)·최순선씨 장녀 세라양=9일(토) 오후 12시30분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 3층 컨벤션홀 062-610-7000.

▲최영호(한국전력 상임감사·전 광주 남구청장)·고(故) 진승자씨 장남 용복군, 김구현·김요순씨 장녀 정림양=10일(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1층 르씨엘홀 062-228-0000.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여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부음

▲이덕임씨 별세, 민병돈(유진투자증권 WM사업본부장.상무)씨 모친상=발인 5일 오전 9시 광주금호장례식장 특301호실 062-227-4000.